

韓녹색기업들, 중국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241억 수출

환경부,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열분해설비 수출계약 내달 중 체결 5.2억달러 규모 사업상담 진행 성과

우리나라가 중국 녹색산업 시장 진입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산둥성·허베이성 현지에 환경기술 보유 기업 등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0억 원대의 수출·수주 실적을 거뒀다.

환경부는 이달 8~13일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 등 24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기업 10개사와 함께 우리나라가 보유한 녹색기술의 현지 홍보 및 영업 활동을 벌였다.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이다.

그 결과 ㈜에코크레이션이 중국 대련시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열분해설비 12기, 200억 원이 넘는 수출계약을 오는 5월 중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말 링쇄평 대련시 부시장이 인천 서구 소재 에코크레이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분석센터는 하이난성 청마이현공업단지 내 악취추정장비 18개(악취모니터링사업)와 관련해 1억4000만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현지기업인 EC Sense and AQS와 대기측정장비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체결했다.

이번에 개척단과 동행한 기업은 ㈜



환경부와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이 이달 초·중순 중국 현지를 찾아 녹색산업 수주에 나섰다. 사진은 중국 산둥성 녹색기술설명회 모습. /환경부

과학기술분석센터, ㈜대명에스코, ㈜블루윈, ㈜CK월드, ㈜에코젠, ㈜에코크레이션, ㈜연합안전건설링, 정우이엔티(주), 창성엔지니어링(주), ㈜TNE Korea 등이다.

환경부는 또 산둥성 생태환경청, 허베이성 무역촉진위원회 등과 현지에서 환경협력회의를 열었다. 산둥성 회의는 9일 지난라마다호텔에서, 허베이성 회의는 12일 스자좡중마오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개최됐다. 양국 기관은 ▲기술교류 및 교환연수 지속 추진 ▲한-산둥성 교류협력 20주년 행사(2025년 예정) ▲허베이성 한단지 대기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참가 국내기업 5개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했다.

이 밖에,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

회가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돼, 지난 10~12일 베이징 소재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됐다. 또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도 열렸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녹색산업 추진단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10개사에서 총 177건,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상담을 진행했다"며 "향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담아 보관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훈련생이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직업훈련포털(HRD-Net) 모바일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2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의 이력과 수준(NCS 레벨)에 대한 정보를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훈련 수료 시마다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를 주어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은 직업훈련포털 앱을 설치하고 '나의 정보-나의 전자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내가 이수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고용정보원은 올 연말까지 고용24 등 공공·민간 취업포털에서 입사 지원 시 종이 서류를 대신해 디지털 배지를 첨부·제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기로 했다.

김영중 원장은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국민 디지털 이력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추진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일 국가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5년 미만 근무 장교·부사관 등 가능

단기복무 군간부도 전역을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월 29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린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 수준이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이나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영농형 태양광' 활용해 농가소득 높인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 회의 농식품부, 도입 촉진 3대 전략 발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기여

정부가 국내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국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농업인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 및 수익 수혜자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도입 촉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내세웠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이다.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메트로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

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허가 취소·과태료·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울, 17개 기업과 '동행매력정원' 선택

기업 가치·매력 담은 특색공간 조성

내달 16일 서울 독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국내·외 기업들이 동참한다.

서울시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동행정원'은 각 기업의 가치와 매력이 담긴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며지며,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유지돼 독섬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

이다.

업무협약은 지난 18~19일과 23일 총 3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참가 기업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등 총 17개사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캐릭터 정원을 만들고,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그린 플러스 도시 숲을 조성한다.

시는 QR코드를 통해 정원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입구에 '정원 안내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